



# 다산 콘텐츠의 공간 스토리텔링을 통한 감성 콘텐츠 개발

— 남양주시 연계 다산 콘텐츠 활용 —

권 수 빈

안동대학교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  
원 융합콘텐츠학과  
석사과정

## 목 차



### 머리말

- I. 다산 콘텐츠 문화 가치 분석
- II. 다산 공간 스토리텔링; 다산의  
고향, 마재마을

### III. 다산 감성 콘텐츠; 여유당에 앉아

- 맺음말
- 참고자료
- 부록

## <국문요약>

역사문화자원 콘텐츠 소재로서 다산은 그가 살아온 인생, 남긴 업적만큼이나 무궁무진하고 가치가 높다. 본 연구는 이러한 다산 정약용이라는 인적 가치를 소재로 한 콘텐츠를 접함으로써 수용자가 공감하고 감동할 수 있는 ‘감성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남양주시의 공간을 기반으로 한 다산 콘텐츠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다산 콘텐츠의 문화가치를 분석하기 위해 수용자 분석을 실시하였다. 공간적 범위와 연구자의 편의추출법에 의해 다산 유적지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고, 인터뷰와 참여관찰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수용자의 관람 형태와 그들이 콘텐츠에 대해 느끼는 다양한 이미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수용자들은 가족관광객이 가장 많았고 다산 유적지를 첫째, 체험하고 배우는 공간 둘째, 역사 관광지 셋째, 자연친화적인 경험이 가능한 휴식 공간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수용자와 다산을 연결하기 위한 콘텐츠 키워드를 ‘휴(休)’와 ‘가

(家)’로 선정하고, 공간 스토리텔링을 통해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를 다산이 어린 시절을 보내고, 강진에서의 긴 유배를 끝내고 돌아와 여생을 보냈던 다산의 고향이자 마음의 터전으로 보았다. 수용자가 나와 연결 지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다산의 면모를 재조명하여 감성 콘텐츠를 제안하였다.

콘텐츠 개발을 위한 설계는 기반 스토리, 개요, 구성안의 순서로 제안하였다. 더불어 연관성과 체험성에 따라 다산 콘텐츠의 공간 스토리텔링 전략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콘텐츠는 수용자가 다산의 공간에 방문함으로써 휴식과 가족애를 느끼고 나아가 다산과 나를 연결 짓고, 다산의 얼을 느끼게 해주는 감성 콘텐츠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 머리말

문화콘텐츠의 개발과 활용은 전통문화를 현대적으로 계승하는 방법 중 사람들에게 친숙하며 쉽고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다. 남양주시는 다산 정약용의 학문과 사상을 잇기 위해 다양한 콘텐츠 활용을 시도하고 있다. 남양주시의 이러한 여러 가지 형태의 콘텐츠를 개발하려는 시도로 다산 정약용이라는 인물은 남양주시의 대표 인물이자 역사문화자원 콘텐츠 소재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으며, 곳곳에 조성된 다산 콘텐츠들은 방문자로 하여금 남양주시를 다산 정약용이 나고 자란 장소로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역사문화자원 콘텐츠 소재로서 ‘다산’은 그가 살아온 인생만큼이나 무궁무진하고 가치가 높다. 기존의 다산 콘텐츠는 방문객으로 하여금 다산 사상을 다양한 형식으로 접하게 한다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다산 정약용이라는 인적 가치를 소재로 활용하고 있음에도, 방문객에게 다산은 강한 인상을 남겨 주지 못하고 아직도 멀게만 느껴지는 듯하다. 지금의 다산 콘텐츠는 단순히 다산 정약용을 접하고 알게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콘텐츠를 접하는 수용자의 감성을 자극하고 진정으로 다산의 얼을 느끼고 체화(embodied)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있다.

이제는 흩어져 있는 다산 콘텐츠들을 스토리텔링으로 재조명하여 방문자로 하여금 다산의 얼을 느끼고, 감동하고, 기억하게 하는 ‘감성 콘텐츠’가 필요하다. 수용자는 어떤 형식의 콘텐츠이든, 그것을 접하면서 자신의 감각을 사용하여 체험하게 된다. 감성 콘텐츠는 수용자의 시각적이거나 청각적, 촉각적인 1차적 감각 체험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그의 지성과 감성을 동시에 자극한다. 스토리텔링은 이러한 다산콘텐츠의 ‘감성 콘텐

츠' 화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역사적 인물을 스토리텔링하는 것은 단순히 그가 언제 어떻게 살았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왜 그러한 삶을 살았고,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이다.<sup>1)</sup> 그렇기에 스토리텔링의 과정을 통해 과거 속 다산과 현대의 우리를 연결 짓는 것이 가능하고, 수용자의 감성을 자극하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콘텐츠로 나아갈 수 있다.

콘텐츠 개발의 시선은 수용자의 눈높이에 맞춰져야 하며 또한 편협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시선에 있어야 한다. 때문에 본 연구는 인터뷰와 참여관찰을 연구방법으로 활용하여 수용자 분석 연구를 진행하였다. 실제 수용자가 느끼는 다산 콘텐츠의 문화적 가치를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기획자의 시각으로만 콘텐츠를 기획하는 것이 아닌 수용자적 측면에서 방문객이 구경꾼이 아닌 주체가 되어 다산 콘텐츠를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본 연구는 감성 콘텐츠 개발을 위한 전략으로 공간 스토리텔링을 적용하였다. 다산 유적지와 그 일대인 마재마을을 다산의 고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간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보았다. 공간 스토리텔링이란 공간을 하나의 이야기와 같이 만드는 것이다. 방문객은 그 이야기 안에서 주인공이 된다. 또한 스토리텔링에 의해 재구성된 공간 안에서 체험하며 '좋다, 나쁘다'와 같은 단순한 생각을 갖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성 체험을 통해 자신만의 '경험적 의미'를 가지게 된다. 잘 된 공간 스토리텔링은 방문객의 감성 체험을 더욱 풍부하게 한다. 이에 방문객 스스로 감성체험을 통해 쉽고 친숙하게 경험적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공간 스토리텔링을 통해 마재마을을 다산의 고향이자 먼 유배지에서도 그리워했던 다산 마음의 터전, 그리움의 대상으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다산 콘텐츠에 대한 수용자 분석을 통해 도출한 주관적 이미지와 마재마을 공간 스토리텔링을 종합하여 콘텐츠 기본 방향을 도출하고, 수용자가 공감하고 그들에게 오래 기억될 수 있는 감성 콘텐츠를 제안하였다. 콘텐츠의 설계는 기반 스토리, 개요, 구성안의 순서로 제안하였으며 연관성과 체험성에 따라 다산 콘텐츠의 공간 스토리텔링 전략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감성 콘텐츠'는 방문객이 공간을 방문하고 다산 콘텐츠를 접함으로써 방문객 스스로 자신과 다산을 연결 짓고 나름의 의미를 재생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수용자의 콘텐츠 체험이 다산 정약용에 대해 다시 알고, 새로 알고, 깊이 알게 됨으로써 다산 정약용이라는 인물을 가슴으로 느끼게 되는 '긍정적 공감의 경

1) 윤유석, 2010, 「스토리텔링을 통한 지역 역사인물의 대중화 : 안산 최용신 문화콘텐츠를 중심으로」, 『인문콘텐츠』 19호, 321쪽 참고.

협’ 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1. 다산 콘텐츠 문화 가치 분석

### 1. 연구방법

#### 1) 연구방법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공간적 범위와 연구자의 편의추출법에 의해 남양주시 다산 유적지를 대상으로 한다. 다산 유적지는 다산 정약용의 묘와 다산의 생가인 여유당, 다산 사당 문도사, 다산 기념관, 다산 문화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산 유적지는 콘텐츠 자원의 다양한 형태가 복합화 되어 있다. 방문객은 다산 유적지 방문을 통해서 유적지/사적지형(다산 묘), 생가/고택형(여유당), 전시/박물관형(다산 기념관/다산 문화관)의 다양한 인문 자원 콘텐츠를 접할 수 있다. 도보 이동 거리 내에 실학 박물관이 위치하고, 입구에서 실학박물관까지 이르는 거리에 기념비와 거중기 모형 등을 전시한 다산 문화의 거리가 조성되어 있는 등 전시/박물관형 콘텐츠가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다산 유적지는 인근에 다산생태공원, 실학생태동산과 같은 자연 자원 콘텐츠가 조성되어 있으며 매년 가을 다산문화제가 열리고 있다. 이외에도 공연, 연극, 교육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다산 콘텐츠의 대표 공간이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고, 동시에 물리적 위치를 가진 장소인 다산 유적지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2) 자료 수집과 분석

본 연구는 문헌 연구, 인터뷰, 참여관찰, 현장 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문헌 연구는 콘텐츠로 활용 가능한 다산 정약용의 생애와 사상을 고찰하기 위해 활용하였으며 학술지, 논문, 인터넷 자료, 단행본 등의 각종 문헌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인터넷 자료 조사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 있는 기존의 다산 콘텐츠를 성격에 따라 분류, 분석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한 인터뷰는 8월 16일 9시부터 6시까지 총 1회에 걸쳐 다산 유적지를 방문한 관광객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인터뷰가 이루어진 순서대로 연구 참여자에

게 A부터 F까지 고유번호를 부여하였으며, 가족일 경우 같은 성별의 구분만 두고 같은 고유번호를 사용했다.

인터뷰는 여유당 앞 쉼터, 유적지 입구, 배다리 앞 등 다산 유적지 내 여러 곳에서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연령대나 성별은 따로 정하지 않았으며, 다만 수용자 분석을 통한 다산 콘텐츠의 문화 가치 분석이라는 연구 목적에 따라 참여 관찰 결과 적극적 관람 형태를 보이는 방문객을 위주로 선정하여 인터뷰하였다. 선정된 연구 참여자에게 다산 유적지 방문 동기와 방문 후 느낌, 다산 정약용에 대한 생각을 즉석에서 질문하였다.

또한 다산 유적지를 관람하는 관광객의 실제 동선과 관람 형태를 참여관찰 하였다. 참여관찰이란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의 일상적 삶에 참여함으로써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연구자는 참여관찰을 통해 참여자들이 일상적으로 직면하는 상황이 무엇이며 그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 그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sup>2)</sup>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참여관찰을 통해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다산 유적지를 방문한 방문객들이 구성된 공간 내에서 콘텐츠를 어떻게 이해하고 행동하는지 관찰하였다.

자료 분석은 수용자 분석을 통해 수용자가 느끼는 다산 콘텐츠의 주관적 이미지를 분석하고, 다산 콘텐츠에 대한 문화 가치를 분석하였다. 수용자 분석은 다산 콘텐츠의 감성 콘텐츠화를 위한 컨셉 도출이며 방문객을 대상으로 콘텐츠에 대해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조사하여 그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와의 인터뷰 자료는 귀납적 내용 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2. 다산 콘텐츠 현황

콘텐츠는 유무형의 형태에 따라 많은 분류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콘텐츠의 범위를 ‘다산 정약용’이라는 인적 가치를 바탕으로 하되 남양주시 내에 실체를 가진 공간이거나 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로 한정하고, 공간 콘텐츠의 자원 형태에 따라 자연 자원 콘텐츠와 인문 자원 콘텐츠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또한 콘텐츠의 시간적 범위를 현재로 두고, 현재 구성되어 있거나 진행되고 있는 콘텐츠를 대상으로 하였다. 자연 자원과 인문 자원 콘텐츠 각각의 유형 항목으로 자연 자원은 등산로/탐방로, 공원/수목원으로 구분하였고, 인문 자원은 유적지/사적지, 생가/고택, 공연/행사장, 전시/박물관, 축

2) 나미수, 2012, 『미디어 연구를 위한 질적 방법론』, 커뮤니케이션북스, 91-92쪽 참고.

제, 기타로 구분하였다.<sup>3)</sup> 이에 따른 다산 콘텐츠 유형 분석은 아래 표와 같다.

<표 1> 다산 콘텐츠 유형 분석

대분류	중분류	명칭	내용	항목 수	
자연 자원	등산/탐방로	남양주 다산길	남양주 전역에 걸쳐 대표적 역사 관광지와 자연을 이은 총 13개 코스 길, 각 코스별로 남양주시의 주요 사적과 명승, 주제에 따라 명칭을 따로 정하고 주요 경관 지점마다 전망대를 설치하고 다산의 글귀를 새겨놓았음 <sup>4)</sup>	1	3
	공원/수목원	다산생태공원	다산 유적지 주변에 조성된 생태공원으로 생태습지와 수변산책로, 수생식물원 등이 있음	2	
		실학생태동산	다산 정약용 탄생 250주년을 기념하여 설립된 공원으로 공원 내에 실학마당, 다산 채마원, 실학의 숲 등이 위치함		
인문 자원	유적지/사적지	다산 정약용 묘	1972년 경기도 기념물로 지정된 다산 정약용의 묘소	1	13
	생가/고택	여유당	다산의 생가로 전쟁으로 인해 훼손되었던 것을 1986년 복원함	2	
		문도사	다산 유적지 내에 다산 생가가 복원되면서 함께 신축된 사당		
	전시/박물관 <sup>5)</sup>	다산 기념관	다산 유적지 내에 위치하며 다산의 대표 저서, 거중기 모형 등이 전시되어 있으며 디오라마 모형 전시가 주를 이룸	5	
		다산 문화관	다산 기념관과 함께 다산 유적지 내에 위치하며 다산 생애 중 주요		

17

3) 김영순 외, 2013, 『제주도 문화자원의 종합적 스토리텔링화 방안』, 제주발전연구원, 56-57쪽 참고.

			사건을 바탕으로 전시한 전시실과 강당이 있음		
		다산 문화의 거리	다산 유적지(여유당, 사당, 기념관, 문화관 등)와 실학박물관을 잇는 거리로 다산의 기상과 문학, 생애 등 다양한 주제에 따라 구성됨		
		실학 박물관	조선후기 실학사상을 소개하는 박물관으로 다산 유적지 인근에 위치, 다산에 한정되기보다 다산을 비롯한 여러 실학자와 그들의 업적에 대해 폭넓게 다루고 있음		
		남양주 역사박물관	남양주시의 역사를 소개하는 박물관, 남양주의 대표학자 정약용이라는 컨셉으로 박물관 내 가변형 전시 코너에 전시되어 있음. 3D영상, 저서 등이 전시되어 있으며 특히 남양주시와 정약용을 연계한 전시가 눈에 띄임		
	축제	다산 문화제	1986년 처음 진행되어 남양주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한 축제로, 다산대상시상식, 다산학술논문대전, 다산 서예대전 등의 행사가 함께 이루어짐	1	
	기타	다산 학교	다산 유적지, 실학박물관 일원에서 진행되는 청소년 대상의 다산의 생애와 학문 등에 대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5	
		실학 박물관 체험프로그램	다산 유적지와 그 일대, 정약용의 고향 마재마을을 탐방하는 실학토토방(출발! 마재마을 탐험대)와 청소년 참실학교실(다산과의약속) 등		
		다산 유적지 체험프로그램	다도 체험교실과 서예 체험교실로 다산 유적지 내에서 진행되는 체		

			협 프로그램			
	다산이 살아있다		역사체험연극으로 다산문화관 내 강당에서 이루어지며 어린이들이 연극을 관람할 뿐 아니라 직접 참여하여 역사를 배울 수 있도록 함			
	다산, 빛에서 만난다		남양주역사박물관 2014 길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으로 다산의 칠실관 화실을 바탕으로 하는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 3. 다산 콘텐츠 문화 가치 분석

다산 유적지는 정약용이라는 역사인물 콘텐츠 자원을 소재로 한 유적지, 생가, 박물관, 공원, 거리 형태의 다양한 공간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시, 영상, 교육, 축제, 연극, 체험 등 무형의 콘텐츠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다산 콘텐츠의 대표 공간이다. 다산 콘텐츠의 문화 가치 분석을 위하여 다산 유적지 현장 조사를 통해 수집된 인터뷰 결과를 원자료의 귀납적 내용 분석으로 분석하였다.(표2 참조)

인터뷰 내용 분석 결과와 참여 관찰 결과를 종합하여 방문객에 의한 다산 유적지의 이미지를 도출하였다. 또한 다산 정약용에 대한 방문객의 표현 어휘를 분석하여 다산 유적지 방문을 통해 방문객이 정약용이라는 인물에 대해 갖게 되는 주관적 이미지도 함께 분석하였다.

<표 2> 다산 유적지 방문객의 인터뷰 내용 분석 결과

원자료 (빈도)	세부영역	일반영역
가깝다(3), 서울 근교(1), 근처(2)	높은 접근성(6)	접근성과 홍보에 따른
가볼만한 곳(3), 라디오(2)	홍보(5)	방문(11)

4) 두산백과(<http://terms.naver.com/>), (2014. 8. 10)

5) 조영주, 2012, 「지역박물관의 문화원형 전시 비교연구-다산 정약용 전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4-40쪽 참고.



건다(1), 둘러보다(1), 머무르다(1), 들리다(1), 보다(4)	감각체험(8)	감성체험에 주를 두는 관광 형태(18)
이해하다(3), 생각하다(5), 느끼다(1), 상상하다(1)	감성체험(10)	
구경(2), 관광지(4), 식당(2), 지차체(1), 지역(2)	지역 관광지(11)	관광 공간 이미지(24)
꾸미다(1), 크다(1), 정비하다(1), 개방하다(2), 특이하다(1), 만족(1), 세심함(1), 규모(1)	관광지로서 자체적 평가(9)	
유적지(1), 보존(2), 복원(1)	역사 관광(4)	
공부(3), 설명(2), 교육(2), 학습(1), 체험(2)	체험하고 배우는 공간으로 인식(16)	교육 공간 이미지(23)
배우다(2), 읽다(2), 알다(2)	어린이들에게 대한 교육적 관심(7)	
초등학생(2), 아이들(5)		
자연(1), 산책길(2), 경치(1), 공원(3)	자연(7)	휴식 공간 이미지(36)
공기 좋다(3), 운치 있다(1), 휴식(3), 정돈되다(3), 미학(1), 깔끔하다(1), 깨끗하다(2), 한적하다(1), 가꾸다(3), 아늑하다(1), 친숙하다(1)	자연친화적 경험(20)	
먹다(1), 놀다(3), 나들이(3), 쉬다(1)	여가 생활(9)	
위인(2), 과학자(3), 레오나르도 다빈치(1), 실학사상(2), 학자(1), 인상적이다(1), 놀랍다(1), 대단하다(1), 유배(1)	위인, 학자로서 다산(13)	방문을 통한 다산 정약용에 대한 느낌(16)
고향(1), 살던 집(1), 태어난 곳(1)	사람으로서 다산(3)	

### 1) 다산 유적지 이미지 분석

본 연구의 현장 조사가 이루어진 8월 16일은 공휴일과 주말이 연달아 있는 휴가 기간이었다. 휴가 기간이라는 특수성을 빼고 보더라도, 다산 유적지를 찾은 방문객은 ‘가족 관광객’이 많았다. 부부가 함께 오거나 어린 아이들과 함께 온 3~5인 가족이 주를 이루었으며 그 가운데는 3대가 함께 온 대가족도 있었다. 가족과 함께 온 자녀들의 연령대는 초등학생 또래 아이들이 가장 많았다.

인터뷰를 진행했던 연구 참여자들 모두 서울 혹은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들에게 다산 유적지는 주거지 근처에 있어 가까우면서 가볼만한 곳으로 인식되고 있었으며, 휴일을 맞아 방문하거나 평소에도 즐겨 방문하는 공간이었다. 방문객들의 관광 형태는 머무르거나 보거나 걷는 등의 1차적 감각 체험과 이해하고 생각하며 느끼고, 상상

해보는 2차적 감성 체험이 함께 이루어졌다. 약간의 차이로 감성체험에 주를 두는 관광 형태를 보이기는 했으나 대부분 ‘생각하는’ 단계에 머물러있고 ‘느끼거나’ ‘상상해보는’ 감성 체험에 대한 표현은 드물었다.

앞서 제시했던 <표 2>와 함께 현장조사 시 이루어진 참여관찰 결과를 종합하여 방문객에 의한 다산 유적지의 이미지를 관광 공간, 교육 공간, 휴식 공간으로 분류, 분석하였다.

### ① 관광 공간

연구 참여자들은 ‘정비’ 나 ‘규모’ 와 같은 어휘를 사용하는 등 다산 유적지를 ‘지역’, ‘지차체’ 가 운영하는 ‘관광지’ 로 인식하고 있었다. 실제로 다산 유적지 근방에 흔히 볼 수 있는 식당들은 다산 유적지를 관광지로 인식하기에 충분한 환경임을 보여주었다.

남A(40대, 부부): 요즘에 지자체가 만들어서 그런지 잘 가꿔놨어요. 주민들한테도 좋고. 관광지로 또 오기에 좋은 것 같아요.

여B(40대, 부부): 깔끔하고 정돈 되서 관광지로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보존’, ‘복원’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유적지’ 라고 표현하는 등 역사 관광지로 인식하고 있는 참여자들도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방문객이 다산 유적지를 역사적인 장소이기보다는 ‘관광지’ 로 인식하고 있었고, 그것에는 생가의 복원의 방향과 정도가 영향을 주었다.

여G(30대): 저는 처음에 봤을 때, 너무 깨끗하게 보존되어 있어서 복원이 강하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중략) 그리고 사당은 잠겨 있더라고요. 되게 신경 써서 보존하는구나 생각했는데 너무 깔끔하고 잘 되어 있어서 후대에서 손을 많이 만진 것 같았어요.

남A(40대, 부부): 원래 살았던 것보다 생가를 크게 지었나?

남C(40대, 부부): 유배된 사람치고 대우를 잘 해줬다는 생각이 들고.

다산 생가인 여유당과 관련해서 ‘깨끗하게 보존’ 되어 있다거나 ‘생각보다 크다’거나, ‘유배된 사람치고 대우를 잘 해준 것 같다’ 라는 언급은 생가 복원의 초점이 어

디에 맞춰져 있었느냐를 다시 생각해보게 한다. 연구 참여자의 말대로 다산 정약용이 곳곳에 스며들어 있어야 할 생가가 ‘후대에서 많이 손 만진’ 관광 공간으로만 보이지는 않는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 ② 교육 공간

다산 유적지를 찾은 가족관광객 가운데 초등학생 또래의 자녀들과 함께 온 방문객들은 다른 방문객보다 적극적인 관람 태도를 보이고 있다. 어른들은 자녀들에게 다산 유적지 내에 조성된 각종 안내판, 혹은 다산 기념관과 다산 문화관의 전시 패널 앞에서 잠시 머물며 아이들에게 읽게 하거나 혹은 읽어 주는 등 아이들의 교육에 관심을 두고 있다. 다산 기념관 내 거중기 모형, 다산 문화의 거리의 거중기 모형, 기념비와 혼천의, 홍의포 앞에서 잠시 머무르는 등 모형 전시에도 일반 관광객과 달리 어린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 관광객이 관심을 보였다.

연구 참여자 10명 가운데 7명이 자녀가 있는 40대 이상 중년층으로, 그들은 ‘공부’, ‘학습’, ‘체험’, ‘교육’이라는 어휘를 사용하며 다산 유적지를 교육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초등학생과 아이들의 교육 공간으로 좋다’, ‘아이들이 접하기에 좋다’고 하는 등 다산 유적지 방문을 통한 교육적 효과의 대상이 초등학생 또래라고 생각했다.

여D(60대): 이런 것들이 애들한테는 공부가 되잖아.

여A(40대, 부부): 초등학생 때 체험 많이 다니잖아요. 그런 공간으로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중략) 우리도 애들 저만할 때, 초등학생 때 체험 학습 많이 다녔어요.

여B(40대, 부부): 교육에도 너무 좋고. (중략) 애들이 접하기에도 좋고.

남C(40대, 부부): 여기는 애들한테 학습 공간으로 좋은 것 같아요.

최근 관광객들의 의식수준이나 교육열이 높아지면서 단순히 ‘보고 즐기는 관광’에서 ‘참여하는 관광’이 주요한 영역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sup>6)</sup> 그 가운데 자녀들의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는 가족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다산 유적지 내 주변 공간을 보면 거중기와 배다리, 수원화성 축소 모형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고 다산 유적지 팸플렛

6) 오은지·이훈·정철, 2011, 「가족단위 축제참가자들의 교육적체험 분석」, 『관광레저연구』 23호, 403쪽 참고.

에도 다산의 저술과 거중기, 수원화성, 배다리를 다산이 남긴 유산으로 소개하고 있다.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만 보아도 다산 유적지는 다산 정약용의 업적과 그에 따른 교육적 효과를 어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방문객들 역시 교육적 공간에 관심을 보였고, 투호 놀이나 탁본 체험과 같은 체험 활동이 있는 공간에 다수 체류했다. 체험 활동 공간에서는 어린 자녀들을 둔 가족 뿐 아니라 성인 관광객들도 상당 수 머물며 체험하는 등 관심을 보였다.

일부 연구 참여자들은 단순히 머물거나 관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금 조성되어 있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교육 공간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다산 유적지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교 교육, TV매체, 책 등 여러 통로를 통하여 다산에 대해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정보들은 대개 부정확하거나 아니면 간단한 정도다. 다산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는 과정 또한 능동적이기보다는 매우 수동적이다.

여F(30대): 그래도 여기는 단순히 공원이 아니잖아요. 유적지이고 교육이 되는 공간이면 공원 정도로는 안 되죠. 공원이랑 교육공간은 엄연히 다르잖아요.

여E(30대): 그리고 생가 앞에 조금만 설명이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있지만 지금 정도로는 사람들이 그냥 보고 지나가니까, 잠시 머물러서 볼 수 있도록...

여F(30대): 애들 교육에도, 아무리 엄마들이 설명한다고 해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설명들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들이 다산을 바로 보고, 배울 수 있는 공간이 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한 것은 어떠한 강연이나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잠시 머물러 읽을 수 있는 친숙하고 가깝게 다가올 수 있는 설명이었다. 이 때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수용자가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고찰해보는 단계까지 갈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 즉, 여유당이라는 다산 생가에서 느낄 수 있는 다산에 대한 생동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 ③ 휴식 공간

방문객 인터뷰 전체 결과 가운데 가장 많이 언급된 어휘는 자연친화적 경험에 관한 어휘들로 ‘공기 좋다’, ‘정돈 되다’, ‘한적하다’, ‘깨끗하다’, ‘아늑하다’와 같은 단어들을 사용하였다. 다산 유적지는 연구자의 콘텐츠 분석 결과 인문 자원 콘텐츠가 주를 이루는 공간이었으나 실제 수용자들은 ‘사당 앞에 있는 나무가 좋다’, ‘잘

가꾸어 놓아서 좋다' 고 대답하거나 '공원', '경치' 등 자연 공간에 대해 언급했다. 다산 유적지 내 자연 자원 콘텐츠가 수용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수용자들은 '쉬다', '먹다', '놀다' 와 같은 여가 생활과 관련된 단어들을 사용하며 다산 유적지를 휴식의 공간이자 가족 나들이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 실제로 방문객들은 다산 유적지 내에서 목적지가 없이 공원을 산책하듯 걸어 다니거나 여유당 옆 마련된 쉼터 공간에서 삼삼오오 가족들과 모여 휴식을 취했다. 여유당 내에서도 관람이 끝나면 툇마루에 걸쳐 앉아 쉬면서 함께 온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여A(40대, 부부): 가족들이 휴식 삼아서 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잠깐 그냥 보고 가는 개념이 아니고. 어떤 분들은 자리 펴놓고, 어떤 분들은 여기 도시락 싸와서 먹고 놀기도 하고. 잠깐 가족끼리 나들이 공간으로 괜찮은 것 같네요.

여B(40대, 부부): 물 좋고, 공기 좋은데서 놀러 오기 좋구나 그런 생각...

여G(30대): 공원으로 생각하는 게 나쁜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장점으로, 문턱이 낮다고 해야 하나. '여긴 문화재야' 이런 느낌이 아니라 공원, 놀이 공간, 산책로 이려면 조금 더 문턱이 낮으니까 와보기에 쉬운 것 같아요.

다산 유적지가 공원과 다른 교육 공간이어야 한다고 언급했던 연구 참여자가 있는가하면, 오히려 설 수 있는 휴식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어렵고 멀게만 느껴지는 공간이 친숙하고 가깝게 다가올 수 있다는 연구 참여자도 있었다. 이는 방문 공간에 대한 친숙함을 주는 체험이 곧 장소를 이해하고 받아들여려는 태도를 갖도록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근 휴식과 여가를 찾아 떠나는 여행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마음을 정제하고 치유하는 휴식에 대한 요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다산 유적지 수용자 분석을 통해 주목할 만한 것은 그들이 다산 유적지를 방문함으로써 느끼는 자연친화적인 경험이 다산 정약용에 대한 역사적 이해와 교육적인 효과 등과 함께 융합되어 나타난다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 모두 빈도의 차이는 있으나 교육 공간이자 휴식 공간으로써 다산 유적지를 이해하고 있었다.

참여관찰을 통해 본 다른 방문객들 역시 다산 기념관과 다산 문화관과 같은 전시를 관람할 때에는 자녀에 대한 교육적 열의를 보이거나 전시 패널을 보고 다산 정약용에 대해 같이 온 사람들과 생각을 나누고 감탄하기도 하는 등의 반응을 보임으로써 교육적 체험을 하는

동시에 휴식 공간에서는 자유롭게 거닐거나 앉아 휴식을 취하는 등의 자연친화적 경험을 하였다. 즉 수용자는 하나의 공간 콘텐츠를 통해 휴식과 교육 모두 만족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 2) 다산 유적지 방문을 통해 본 다산 정약용

다산 유적지가 보유하고 있는 다산 콘텐츠 가운데 방문객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고, 방문의 목적으로 두는 콘텐츠는 ‘여유당’이다. 여유당으로 가는 길에 조성되어 있는 다산 문화관과 다산 기념관을 선택적으로 관람하고 여유당으로 가거나 혹은 선택적 관람 없이 바로 여유당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다수였다. 다산 유적지 방문객을 대상으로 방문의 목적과 다산 유적지 가운데 어떤 콘텐츠를 접했는지 묻는 질문에 방문객들은 대체로 여유당을 꼽았다.

남A(40대, 부부): 원래 살았던 것보다 생각을 크게 지었나? 그런 건 잘 모르겠고, 그때 당시가 상상이.... 이런 집에서 살았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여D(60대): 살던 집인가 봐. 여유당 뒤편에 안장되어있네. (중략) 여기가 정약용 고향인 가봐, 태어난 곳인 가봐.

여유당은 복원된 것이기는 하나, 방문객들로 하여금 다산이 살았던 곳이라고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여유당에 관한 설명은 입구에 놓인 안내 게시판이 하나이고, 그마저도 방문객들이 많이 읽지 않아 다산이 여유당이라는 당호를 어떤 마음으로 지었고 여유당에서 그가 어떤 생활을 하였는지 현재 조성된 여유당만 보서는 가늠하기가 어렵다. 한 연구 참여자는 내부에 배치되어 있는 병풍, 화장대, 방석, 서랍장 등에 대해서 ‘세심하다’, ‘디테일을 살렸다’라고 표현했고, 참여관찰을 통해 본 다른 방문객들도 생가 곳곳에 마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물품에 관심을 보였다. 지금보다 더 많이 생가 공간 곳곳에 ‘다산이 살았던 공간’으로서의 자세한 설명이 붙여졌으면 좋겠다는 연구 참여자도 있었다.

남A(40대, 부부): 정약용이 집필을 여럿 했지만 대표적인 목민심서 이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굉장히 많은 책을 남기셨구나 하는 걸 느꼈죠. (중략) 역시 과학자였고, 문화가뿐만이 아니고. 한국의 레오나르도 다 빈치란 말을 들었었거든요.

남C(40대, 부부): 유배된 사람치고 대우를 잘 해줬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정조가 굉장히 예뻐한 사람인데, 내각에 들어오기만 하면 분란을 일으키고, 싸우고. 그러니까 유배 보냈잖아요. 정약용이 책을 한 500권 썼다고 하던데, 다산 제자들을 지도해주시면서 썼다고 하더라고요. 아까도 한 이야기인데 이런 분이 몇 명만 있었으면... 임진왜란이나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었겠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죠.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다산을 ‘위인’이나 ‘과학자’, ‘학자’라고 표현하며 그의 업적에 대해서는 ‘놀랍다’, ‘대단하다’고 표현했다. 앞서 교육 공간으로서의 다산 유적지에서도 언급했듯, 다산 유적지는 강한 교육적 성격을 띠고 있다. 다산 유적지를 이동하는 동선 중 가장 먼저 위치한 다산 문화관의 입구에는 「다산의 저술」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그의 저서 제목이 나열되어 있다. 그리고 유적지 내에 배다리와 거중기 모형이 크게 전시되어 있어 다산 유적지 방문객에게 인상을 남긴다. 이로 인해 연구 참여자들 역시 다산을 500권이 넘는 책을 집필하고, 거중기와 배다리를 만들어낸 ‘위인, 과학자, 학자’라고 받아들이고 있었다.

몇몇 연구 참여자들은 ‘어렸을 때부터 국사 시간에 실학사상에 대해 배워 와서’ 혹은 안내 게시판이 있어서 내국인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가능할지 모르지만,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어렵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고 생각했다. 안내 게시판에 영어 설명이 덧붙여졌으면 한다는 연구 참여자도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참여관찰을 통해 본 다산 기념관과 다산 문화관 관람객들은 연구 참여자들이 말한 대로 ‘위인’, ‘학자’, ‘과학자’로서 다산의 업적에 대한 전시 패널보다 오히려 다산 기념관의 <인자한 아버지 다산>, 다산 문화관의 <하피첩 이야기>, <하피첩에 전하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한 아버지와 남편으로서 다산에 관한 전시 패널 앞에 오래 머물며 관심 있게 관람했다는 것이다. 특히 다산 기념관과 다산 문화관 관람객의 체류 시간을 비교해보면, 다산 기념관에서의 생애나 업적에 대한 객관적 지식의 전달보다는 그의 생애 중 특별한 사건이나 업적을 이야기식으로 풀어나간 다산 문화관의 관람 체류 시간이 더 길었다.

여G(30대): 정약용이란 사람이 본인이 가진 업적이나 능력에 비해 유명하지 않은 느낌이 들었어요. (중략) 정약용은 학자니까 액티브한 느낌은 없겠지만, 사람을 뭔가 탁 건드릴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G(30대): 다산이 책 진짜 많이 썼잖아요. 책으로 유명한데, 이 사람을 어떻게 책

밖으로 꺼낼 수 있는지.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다산 정약용의 학문은 경학·문학·철학·경제·음악·군사 등 그 분야도 매우 방대할 뿐만 아니라 조예도 깊다.<sup>7)</sup> 그가 저술한 500권이 넘는 저서와 다양한 학문 분야에의 성과, 배다리와 거중기로 대표되는 그의 과학적 업적은 지금까지도 높게 평가받고 있으며 다산의 학문은 지금도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될 만큼 가치 있다. 이러한 가치 높은 다산의 사상을 ‘콘텐츠’화 하는 이유는 대중들에게 좀 더 가깝고 쉬운 방법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현재의 다산 콘텐츠는 다산의 업적에 대한 객관적 지식의 전달에만 치우쳐져 있어 콘텐츠 체험이 공감 없이 이루어진 탓에 수용자가 다산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는 수동적이고 표피적이다. 이 때문에 수용자가 다산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그의 사상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친근하게 다가가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 다산 유적지를 꼼꼼하게 돌아 본 연구 참여자가 말했듯, 다산 정약용을 책 밖으로 꺼내 우리 곁으로 오게 하는 콘텐츠가 필요하다.

## II. 다산 공간 스토리텔링; 다산의 고향, 마재마을

한강 상류 둔치에 조성되었던 유서 깊은 마을인 마재는 다산 5대조부터의 역사가 이어졌고, 한국 천주교 초창기의 거물들이 모여들었던 장소이며, 사도 세자의 죽음으로 시·백 당파 싸움이 벌어지던 시대 상황이 다산의 삶과 함께 얽혀 있던 곳이었다.<sup>8)</sup> 다산의 묘 앞으로 다산의 생가가 복원되고, 다산 기념관과 다산 문화관이 차례로 들어서면서 다산 유적지를 만들게 되었고, 그 주변으로 다산의 이름을 붙인 다산생태공원이 들어서 지금의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는 ‘다산 정약용이 살았던 곳’이라는 장소적 정체성을 두드러지게 가지는 공간이 되었다.

장소의 정체성은 장소가 위치하는 물리적인 ‘환경’ 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활동’, 그리고 인간이 장소의 풍경에 부여하는 ‘의미’ 로 인해서 형성된다.<sup>9)</sup> 장소의

7) 손흥철, 2009, 「다산학의 재조명을 위한 시론」, 『다산학』 15호, 7쪽 참고.

8) 박석부, 2014, 『다산 정약용 평전』, 민음사, 83쪽.

9) Edward Relph, *Place and Placelessness*, 김덕현·김현주·심승희 역, 2005,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112쪽 참고.



정체성은 단순히 한 가지의 역사적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과 의미가 복합화 되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장소의 정체성이다. 장소의 정체성은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져왔고 지금 이 시간에도 장소에 수많은 활동과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 이처럼 장소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존에 가진 정체성을 견고히 하거나 변화하기도 하며 정체성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현재 능내리에 살고 있는 주민들 역시 그들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엮어나가며 마재마을이라 불리는 자신들의 마을 능내리를 자신들이 거주하는 터전인 동시에 다산이 어린 시절과 노년 시절을 보낸 ‘다산의 고향’으로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산 유적지 내에 현재 조성되어 있는 다산 문화의 거리, 다산 생가가 공감을 이끌어내는 공간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재조명된다면 그 의미는 더욱 풍부해질 수 있다. 왜냐하면 방문객이 ‘거리’와 ‘공간’을 방문하는 것이 다산에 대해 인식하고, 다산을 이해하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공간 스토리텔링(Space Story Telling)이란 공간을 기반으로 하거나, 공간에 재현되는 스토리텔링을 말한다. 어휘적으로 분석해보면 공간 스토리텔링은 공간(Space)과 이야기(Story), 이야기하는 행위(Telling)로 나눌 수 있다. 다시 말해 공간의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공간에 대한 이야기와 공간을 필요로 하는 이야기를 포함한다.

공간 스토리텔링은 실제 존재하는 공간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소설과 연극, 영화에서 전개되는 이야기의 배경은 모두 독자의 상상 속에 존재하는 가상의 무대다. 이와 달리 공간 스토리텔링은 어떠한 물리적인 실체로서 존재하는 공간을 대상으로 한다. 실제 공간에 재구성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앞선 경우와 달리 이야기의 배경은 가상이 아니라 현실이다. 때문에 수용자가 직접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이야기를 경험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잘 된 공간 스토리텔링은 수용자를 직접 이야기의 무대로 올려 주인공이 되어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게끔 한다.

그렇기 때문에 마재마을의 공간 스토리텔링은 적합하며 또 필요하다. 수용자가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다산 유적지를 방문함으로써, 그 안에 녹아 있는 다산의 이야기를 느낄 수 있다. 공간 스토리텔링은 누군가가 방문객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이야기를 글로 쓰는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공간에 담긴 이야기다. 방문객이 ‘다산의 고향’인 다산의 공간에 방문함으로써 그를 이해하고, 그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바로 공간 스토리텔링이다.

다산이 강진에서의 긴 유배를 끝내고 노년에 돌아와 생을 마감하기까지 지냈던 곳인 마현, 마재, 능안, 능내, 소천, 소내라는 다양한 이름을 가진 마재마을은 다산의 아버지

3형제가 목마타고 뛰놀던 곳이자 다산 5형제가 대를 이어 꿈과 희망을 키웠던 마을이며 또한 다산 큰형수의 남동생인 이벽이 누나 집을 찾아오느라 발걸음이 잦았던 곳이며, 다산의 자형 이승훈이 처갓집으로 자주 찾았던 곳이며, 다산 큰형의 사위이자 다산의 조카 사위였던 황사영이 처갓집으로 찾아오던 곳이었다.<sup>10)</sup>

다산은 마재마을을 자신의 시문에서 ‘소천’이라는 이름으로 자주 언급하였으며, 한강의 옛 이름을 열수라 하여 한강의 상류라는 의미로 마재마을을 열상이라 일컫기도 했다. 또한 스스로를 열수, 열상 노인이라 할 만큼 다산은 자신이 살아가는 공간에 애착을 가졌던 인물이다.

다산의 고향 마재마을은 조선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 평가받는, 여러 분야의 학문을 뛰어넘는 다산의 업적을 접하기 이전에 한 가족의 아들로 태어나 한 가족의 남편과 아버지가 되어 살아갔던, 임금에게 사랑받았던 신하로서의 영광과 그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모진 풍파와 역경의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서 다산’을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다. 더불어 그의 뛰어난 학문적 성과가 이루어진 학문 정신이 깃들어 있는 곳이다. 마재마을은 ‘다산’ 하면 떠오르는 강진 다산 초당과 함께 그를 말해주고 동시에 그를 대변해줄 수 있는 공간이다.

공간 스토리텔링은 공간에 방문한 관광객이 스토리텔링에 의해 재구성된 공간에서 재미와 감동을 느끼게 하고, 재방문을 유도하는데 좋은 전략이다. 공간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민이든 전혀 연고가 없는 방문객이든 모두 공간과 공감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마재마을에 ‘다산의 고향’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공간 스토리텔링은 방문객으로 하여금 다산과 공감할 수 있게 할 것이다.

### Ⅲ. 다산 감성 콘텐츠; 여유당에 앉아

‘공감’ 하는 것의 출발은 낯선 공간 안에서 자신과 관련된 것을 찾는 것에 있다. 우리는 콘텐츠를 기획할 때 방문객이 무엇보다 이 콘텐츠에 집중하고 그것을 알고 받아들이기만을 바란다. 그러나 공감을 이끌어내는 콘텐츠는 사람들에게 낯선 것에서 익숙한 것을 찾을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그렇기에 기획자에게는 익숙한 것을 오히려 다르게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방문객들은 다산 정약용을 두고 그의 학문이자 업적인 ‘실학

10) 앞의 책, 82쪽 참고. ; 박석무, 2014.

사상’과 ‘저술’을 언급하며, 그를 ‘학자’이자 ‘위인’, ‘과학자’라고 평했고 ‘놀랍다’, ‘대단하다’고 표현했다.

그 가운데 한 참여자는 다산 유적지를 관람하고 ‘여기가 다산의 고향인 가좌, 태어난 곳인 가좌’라고 말하며 다산을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는 다산 정약용과는 관계가 없으나 자신과 관련된 경험을 늘어놓았다. 이것은 다르게 보면 방문객이 다산과 나를 연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람들은 콘텐츠를 접하면서 자신의 시각적, 청각적, 촉각적인 감각을 사용하여 체험을 하게 된다. 이러한 체험은 어떤 의미로든 자신만의 의미로 재생산되고 이는 경험이 된다. 의미의 재생산은 수용자가 콘텐츠에 대해서 1차적인 감각 체험이 아닌, 생각하고 이해하고 느끼고 상상하는 2차적인 감성 체험이 이루어졌을 때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실제 다산 유적지를 방문한 방문객들 가운데 소수이지만 느끼고 상상해보는 감성 체험을 하고 있는 방문객들이 있었다.

이에 연구자는 다산의 공간에 방문함으로써 다산과 자신을 연결 짓고 의미를 생산해내는 감성 체험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 과정 안에서 방문객과 다산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콘텐츠를 제안하고자 한다.

## 1. 콘텐츠 기본 방향

다산 콘텐츠 이미지 분석을 통해 알아본 수용자들이 다산 콘텐츠에 대해 가지는 공간적 이미지는 ‘교육’과 ‘휴식’으로, 그 가운데에서도 자연친화적 경험에 대한 만족과 요구가 높은 역사문화공간이었다.

방문객들의 형태는 ‘가족관광객’이 많았다. 그들은 다산 유적지를 자녀들에게 유익하고, 가족들이 오기에 좋은 공간이자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여기고 있었다. 자신들의 가족을 떠올리며 ‘가족과 함께 다시 오고 싶다’고 재방문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에 콘텐츠의 타깃을 ‘가족관광객’으로 설정하고, ‘교육’과 ‘휴식’을 담은 감성 콘텐츠를 제안하고자 한다.

감성 콘텐츠를 통해 수용자가 느끼게 될 다산의 모습은 우리가 그동안 학교교육과 다양한 매체들에 의해 표피적이고 수동적으로 알게 된 다산이 아니다. 콘텐츠 체험을 통해 나와 닮아 있는, 나의 아버지와 같은 다산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제안하는 감성 콘텐츠의 명칭은 ‘여유당에 앉아’이며 이 콘텐츠는 다산 생가 여유당이라는 장소 콘텐츠를 기반으로 하여 가족과 휴식의 개념을 합한 ‘휴가(休家)’라는 컨셉을 중심으로 개

말하였다.

### 1) 장소 콘텐츠 ‘여유당’

다산 유적지의 주된 방문 동기이자 방문객이 유적지 내에서도 가장 많이 찾는 공간은 다산 생가 ‘여유당’이다. 여유당은 생가/고택형 인문 자원 콘텐츠이기는 하나 객관적 지식 전달의 성격이 강한 전시/박물관보다 자연 자원 콘텐츠와 어울려 방문객들로 하여금 접근하기 쉽고 가까운 콘텐츠 형태를 갖추고 있다.

여유당은 다산이 「여유당기(輿猶堂記)」에서 “여(輿)여! 겨울의 냇물을 건너는 듯하고, 유(猶)여! 사방 이웃을 두려워하는 듯하도다”<sup>11)</sup>라는 노자의 글귀를 언급하면서 당호를 여유당(輿猶堂)으로 지은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다산의 글에는 생각하고 행동하기를 경계하고,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살겠다는 그의 생각이 담겨있다.

이와 같이 여유당은 복원되었으나 방문객에게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동시에 다산의 글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 다산 유적지 내에서 다산을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공간이다. 또한 다산 기념관, 다산 문화관, 다산 묘 등 주변에 조성되어 있는 다산 콘텐츠를 이어주는 역사문화공간이다. 그렇기에 여유당은 다산을 깊이 이해하는 감성 콘텐츠의 장소 콘텐츠로 활용될 가치가 있다.

### 2) 콘텐츠 키워드 ‘휴가(休家)’

수용자 분석을 통해 본 연구의 콘텐츠 키워드를 ‘휴(休)’와 ‘가(家)’로 선정하였다. 다산은 꽃과 나무, 산과 물을 즐길 줄 알며 가까운 사람들과 깊은 정을 나누기도 했다. 그는 화려하거나 유별난 것이 아닌 고요하고 맑은 정취를 좋아했다.<sup>12)</sup> ‘휴(休)’는 이러한 다산의 모습과 어울린다. 휴(休)는 단지 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개념이다. 다산 유적지를 방문하면서 수용자들이 가장 많이 얻고자 하는 것은 휴식이었다. 또한 슬로시티인 남양주시 조안면과도 잘 어울리는 키워드이다. 이에 쉽고 느림의 미학을 느낄 수 있는 콘텐츠 체험을 제안하고자 키워드로 선정하였다.

‘가(家)’는 아버지이자 지아비로서의 다산의 면모, 다산의 가족애에서 착안하였다. 다산은 긴 유배생활 동안에도 아들들의 교육에 관심을 가졌고, 귀양 가 있는 몸이지만 혼인하는 딸에게는 그림을 그려 보내 줄 만큼 자상한 아버지였다. 또한 유배 시에는 멀리 떨어져 있는 아내를 걱정하며 아들과 며느리로 하여금 잘 섬기라 당부하였고, 여유당

11) 앞의 책, 350쪽 참고. ; 박석무, 2014a.

12) 박혜숙 편역, 2009, 『정약용 산문 선집 다산의 마음』, 경기: 돌베개, 225-226쪽 참고.

에 돌아와 오랜 역경의 세월동안 함께 지내온 아내와의 회혼례를 앞두고 아내가 유배 당시 보내온 치마폭을 떠올리며 시를 짓는 다정한 남편이기도 했다. 마음을 정제하고 자연과 하나 되는 씬으로서의 ‘휴(休)’와 거주를 넘어 마음의 안식처가 되는 고향으로서의 집, 자신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가족으로서의 ‘가(家)’를 합하여 ‘휴가(休家)’라는 컨셉으로 사람과 자연, 집과 가족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콘텐츠 개념을 제안한다.

## 2. 콘텐츠 설계

### 1) 콘텐츠 기반 스토리

콘텐츠는 다산의 편지글에서 볼 수 있는 다산의 가족에 스토리를 기반으로 한다.

다산은 몇 백리가 넘는 유배지 강진에서 큰 아들 학연과 둘째 아들 학유에게 편지를 보내어 자식 교육을 했다. 가까이 있으면서 교육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학문 익히기를 열심히 하라 이르고, 때로는 편지로도 학문에 소홀히 하는 듯한 아들들을 꾸짖기도 하였다. 비록 몸은 먼 곳에 있으나 아들들을 깊이 사랑하고, 그들이 학문을 함에 근본을 알고, 바탕부터 튼튼히 할 수 있는 선비가 되기를 바랐다. 그는 「기양아(寄兩兒)」라는 편지에서 공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지 않은 아들들을 나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내가 유배 생활에서 풀려 몇 년간이라도 너희들과 생활할 수만 있다면 너희들의 몸과 행실을 바로잡아 효제를 숭상하고 화목하고 지내는 일에 습관이 들게 하며 경서를 연구하고 시례(時禮)를 담론하면서 3000~4000권의 책을 서가에 진열하고 1년 정도 먹을 양식을 걱정하지 않도록 원포(園圃)에 상마(桑麻)·소과(蔬果)·화훼·약초 등을 심어 잘 어울리게 하고 그것들이 무성하게 자라는 것을 구경하면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마루에 올라 방에 들어가면 거문고 하나가 놓여 있고 주안상이 차려져 있으며 투호(投壺) 하나, 붓과 벼루, 책상과 도서들이 품위 있고 깨끗하여 흡족할 만한 때에, 마침 반가운 손님이 찾아와 닭 한 마리에 생선회 안주 삼아 탁주 한 잔에 맛있는 풋나물로 즐겁게 먹고 어울려 고급의 일을 논하면서 흥겹게 산다면 비록 폐족이라 하더라도 안목 있는 사람들이 부러워할 것이고 이렇게 한두 해의 세월이 흐르다 보면 반드시 중흥의 여망이 비칠게 아니냐.”<sup>13)</sup>

13) 앞의 책, 411쪽. ; 박석무, 2014.

다산은 이렇듯 아들과의 편지를 통해서 유배 후 마재로 돌아가 가족들과 일상적인 삶을 보내는 것을 그려보기도 했다. 이 내용은 콘텐츠의 공간 연출 스토리로도 활용 가능하다. 다산이 아들과 함께 하길 바랐던 풍경들을 편지글을 통해 듣게 되고 실제 재현되어 있는 공간을 보면서 다산의 애뜻함과 그리움에 대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산이 유배 중이던 때에 부인 홍씨가 강진으로 여섯 폭의 치마를 보내온 일화가 있다. 슬픔과 쓸쓸함, 덧없음, 회환, 미안함의 감정을 가지고 다산은 치마폭에 글을 써 「하피첩」이라는 이름으로 아들들에게 물려준다. 이것은 실학박물관과 다산문화관에서 전시 패널을 통해 설명되고 있는 것으로, 다산은 「제하피첩(題霞帔帖)」이라는 글에서 “단정하고 곱게 장정된 책으로 만들고자 가위로 재단하여 조그마한 첩을 만들고, 손이 가는 대로 경계해 주는 말을 지어서 두 아들에게 넘겨주려다. 아마도 뒷날 이 글을 보고 감회가 일어날 것이고 아버지, 어머니의 좋은 은택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그리워하는 감정이 뭉클하게 일어나리라.”<sup>14)</sup>라고 하였다.

이후 외동딸이 친구 윤서유의 아들 윤창모에게 시집갈 때도 치마폭에 「매조도」 그려 보내주었다. 다산의 지아버로서, 아버지로서의 면모를 볼 수 있다. 그리고 다산이 생애 마감하던 날, 아내와의 회혼례가 있었다. 그는 60년 긴 세월동안 힘들고도 기뻐했던 지난 날을 떠올리며 「회근시」를 남겼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회혼례를 앞두고, 다산은 눈을 감았다.

## 2) 콘텐츠 개요 및 구성안

본 연구에서 제안되는 콘텐츠인 ‘여유당에 앉아(가칭)’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한 매달 마지막 수요일(매마수) ‘문화가 있는 날’ 야간에 이루어지도록 기획하였다. 문화가 있는 날은 일반인들이 영화, 공연, 전시 등의 다양한 문화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무료 관람 및 다양한 혜택을 주는 날로 대중의 호응을 얻고 있다. 남양주시에서도 매마수에는 문화재와 미술관, 박물관을 무료개방하거나 도서관 야간개방을 실시하고 있어 이와 같은 날에 콘텐츠가 이루어진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 <표 3> 감성 콘텐츠 ‘여유당에 앉아’ 개요

14) 앞의 책, 477쪽. ; 박석무, 2014.

제목	여유당에 앉아(가칭)		
타깃	가족 단위의 지역주민, 관광객		
운영일시	매달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pm 6:30~9:30		
운영주체	남양주시, 다산문화제추진위원회, 능내리 지역주민		
기획의도	‘마재에 살다 간 다산, 여유당에 앉아 아버지 다산을 기억하다’ 마음의 터전 마재를 떠나 유배지에서 가족을 그리워했던 아버지 다산, 여유당에서 그를 그리워했을 다산의 가족. 안타까운 다산의 처지를 이해하고 나의 가족에 대한 사랑과 소중함을 느껴본다.		
프로그램*	제목	내용	운영시기
	다산의 글월	가족 편지 쓰기 체험	연중
	여유당 낭송회	가족들의 편지, 다산의 시와 글귀 낭송회	
	뜨락 영상제	다산 영상, 가족과 효에 관련된 영화 상영제	5~9월
작은 음악회	주민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작은 음악회	(동절기제외)	

콘텐츠의 세부 프로그램은 총 4가지로 구성하였다. ‘여유당에 앉아 아버지 다산을 기억하다’ 라는 기획의도와 콘텐츠 키워드 ‘휴가(休家)’ 에 맞게 제안하였다.

주목할 것은 콘텐츠의 타깃이자 운영의 주요 주체가 ‘능내리 주민’ 이라는 것이다. 세부 프로그램 내용은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남양주시와 다산문화제추진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이다. 주민들은 콘텐츠를 접할 가장 첫 번째 타깃이자 콘텐츠를 만들어 나갈 인력들이다. 지역민이 직접 참여하여 그 속에서 즐거움과 보람을 느끼지 못한다면, 외부 방문객에게도 콘텐츠 체험이 유의미하게 다가가지 않을 것이다.

다산이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마루에 올라 방에 들어가면 거문고 하나가 놓여 있고 주안상이 차려져 있으며 투호(投壺) 하나, 붓과 벼루, 책상과 도서들이 품위 있고 깨끗하여 흡족할 만한 때에, 마침 반가운 손님이 찾아와 닭 한 마리에 생선회 안주 삼아 탁주 한 잔에 맛있는 풋나물로 즐겁게 먹고 어울려 고금의 일을 논하면서 흥겹게 산다면 비록 폐족이라 하더라도 안목 있는 사람들이 부러워할 것이고 이렇게 한두 해의 세월이 흐르다 보면 반드시 중흥의 여망이 비칠게 아니냐.”<sup>16)</sup>라고 하였듯, 집에서 가족,

\* 프로그램은 시간, 날씨, 참가자 특성에 따라 1-2개 프로그램 선택 운영이 가능하다.

16) 앞의 책, 411쪽. ; 박석무, 2014.

손님들과 모여 앉아 두런두런 이야기 나누는 밤이 되도록 콘텐츠가 운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 예약제를 두어 인원제 제한을 두는 것이 좋다.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라도 친근하고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콘텐츠의 목적이다.

‘여유당에 앉아’의 4가지 프로그램은 2부로 나누어 1부 다산의 글월, 여유당 낭송회와 2부 프락 영상제와 여유당 음악회로 구분할 수 있다.

<표 4> 감성 콘텐츠 ‘여유당에 앉아’ 구성안

제목	내용	
다산의 글월, 여유당 낭송회	기획의도	<p>‘아버지 다산, 그를 기억하다’ 몇 백리가 떨어진 곳에서도 편지로 가족애를 전달했던 다산의 편지글을 통해 다산의 아내와 자식에 대한 애뜻한 정을 느끼고 모진 풍파와 역경의 삶을 살았던 다산의 마음을 깊이 이해한다.</p>
	진행방법	<p>‘家, 다산을 통해 느끼는 가족애’ 직접 가족에게 편지를 써봄으로써 가까이 있어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는 기회를 갖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유당 안채와 사랑채 안에 아버지, 어머니, 자녀가 따로 들어가 다산의 가족애에 대한 영상을 본다.</li> <li>· 영상은 다산이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 아내가 보내온 치마폭 이야기, 「회근시」를 남기고 회혼례 당일 눈을 감은 이야기 등 다산의 가족애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어야 한다.</li> <li>· 자신의 가족에게 직접 편지를 써본다.</li> <li>· 낭송회를 통해 가족에게 직접 쓴 편지를 읽거나 주민들이 미리 읽고 싶은 다산의 편지글과 다산 시, 산문 글귀를 선정하여 낭송하고 다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li> </ul>
프락 영상제, 작은 음악회	기획의도	<p>‘休, 다산과 마재에 노닐다’ 여유당에서 가족들과 함께하며 영화와 음악을 통해 휴식과 여유를 느낄 수 있다.</p>
	진행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산과 관련되거나 가족애, 효의 내용을 다루고 문화적 가치가</li> </ul>



	<p>높은 영화를 상영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산 영상은 기존의 영상을 활용하며 영화의 선정은 체험 참여자의 신청에 의해서도 가능하도록 한다.</li> <li>· 작은 음악회는 지역주민이 참여하거나 일상 속 거리공연과 같은 형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li> </ul>
--	--------------------------------------------------------------------------------------------------------------------------------------------------------------------------------------------

감성 콘텐츠의 메인 체험프로그램인 ‘다산의 글월’은 다산이 가족들에게 쓴 편지에 대한 영상을 보거나 직접 편지글을 읽어봄으로써 학자로서의 다산이 아닌 아버지 다산의 면모를 보여준다. 이는 학자로서의 다산의 면모와 업적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친근한 다산의 모습을 접함으로써 학자 다산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다.

여유당 안채와 사랑채에 따로 앉아 다산과 부인 홍씨, 아들 학연과 학유가 몇 백리가 넘는 먼 거리에서 서로를 그리워했을 안타까운 상황을 떠올리며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편지를 써보는 갖는다. 편지라는 매개체로 나와 다산, 나와 가족들을 잇는 의미 있는 콘텐츠 체험이 가능하다.

‘여유당 낭송회’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여유당에 둘러 앉아 직접 쓴 편지와 미리 읽기 위해 선정한 다산의 시와 산문 글귀를 읽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그리고 간단한 주전부리를 먹으며 다산의 문학에서 나타나는 사람 다산, 그에 대한 생각들을 나눠본다.

‘뜨락 영상제’는 다산과 관련되거나 가족애, 효를 다루는 영화를 비롯해 문화적 가치가 높은 영화를 함께 보는 영상제이다. ‘작은 음악회’는 유명한 가수의 초청공연이 아닌 소소한 거리 공연과 같은 음악회이다. 두 프로그램 모두 대형 축제나 이벤트가 아닌 작은 소모임의 개념이다. ‘뜨락’이나 ‘작은’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도 그 때문이다. 특히 뜨락은 정원을 꾸미던 다산의 모습에서 착안 한 것으로, 다산은 그의 글 「죽란화목기(竹欄花木記)」에서 아침저녁으로 구경할 만한 연못이나 정원이 없어 꽃과 과일 나무 가운데 좋은 것을 구해 정원을 만들었다고 말했다.<sup>17)</sup> 본 연구에서는 뜨락 영상제에 활용될 영상에 대한 기획은 다루지 않지만, 향후 본 연구의 콘텐츠 개발에서 주목한 ‘사람으로서의 다산’이라는 컨셉으로 영상 기획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감성 콘텐츠 ‘여유당에 앉아’는 다산의 공간에서 도란도란 모여 앉아 다산의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이자 지아비로서의 다산의 모습을 떠올려보는 경험이 될 것이다. 18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떨어져 살 수 밖에 없었던 다산과 가족들의 애달픔을 콘텐츠를 통

17) 앞의 책, 190쪽 참고. ; 박석무, 2014.

해 느끼고, 자신의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는 동시에 ‘휴(休)’ 체험을 통한 느낌의 미학도 함께 경험하게 될 것이다.

### 3) 공간스토리텔링 전략분석

공간 스토리텔링은 체험성과 연관성의 측면에서 전략 분석이 가능하다. 이는 공간 스토리텔링으로 인해 구성된 공간 안에서 방문객이 어떠한 체험을 통해 공간과 스스로의 연관성을 찾아 낼 수 있었느냐를 가늠하는 것이다.

#### ① 체험성

공간 스토리텔링의 체험은 단순히 보거나 듣는 활동이 아니라 인지적 경험을 불러일으키는 체험을 말한다.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공간 스토리텔링은 수용자에게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직접적 체험을 가능하게 하고 수용자는 사고, 이해, 지각, 기억 등의 인지적 경험을 하게 된다.

원래의 여유당은 다산 생가라는 이름이 없다면 누구의 집인지 모를 정도로 설명이 부족하다. 안내 게시판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마저도 읽지 않는 방문객이 많아 다산 생가에서 다산을 느끼기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공간 스토리텔링을 통해 방문객은 여유당은 일반적인 전통가옥이 아니라 다산의 생가, 다산을 말해주고 대변해주는 공간으로 느끼게 된다. 다산의 공간인 여유당 안에서 감성 콘텐츠 체험이 이루어진다면 방문객들은 다산에 대해 사고하고, 이해하며 인지적 경험을 하게 된다. 즉, 방문객이 이타적인 관점에서 여유당을 관람의 대상, 혹은 보존의 대상으로만 보았다면 감성 콘텐츠 체험을 통해 여유당을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겪어봄으로써 유의미한 경험을 하게 된다.

#### ② 연관성

스토리텔링의 목적은 수용자가 공감하고, 감동하는 데 있다. 수용자가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은 이야기를 직접 체험하고 이를 나와 연관 짓는 것이다. 다산 감성 콘텐츠 ‘여유당에 앉아’는 나와 다산을 연관 지을 수 있는 콘텐츠다. 집, 가족에 대한 이미지는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콘텐츠 체험을 자신의 경험으로 가져올 수 있는 여지가 크다. 다산의 애틋한 마음이 담긴 편지를 보고 직접 나의 가족에게 편지쓰기, 낭독하기 등의 체험을 통해 다산의 가족애에서 나의 가족애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즉, 아버지로서 다산의 모습에서 나의 아버지, 혹은 나의 아들을 떠올려 다산과 나를 연결함으로써 공감하게 된다.

이러한 체험은 다산 생가인 여유당 내에서 이루어진다. 즉, 다산과 나는 ‘집’이라는 공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집은 가족이 함께 모이는 공간이다. 그러나 다산에게는 18년이라는 긴 유배 때문에 가족과 함께하고 싶어도 함께 할 수 없었던 공간이자 그리움의 공간이다. 방문객은 이러한 다산의 공간에서 편지라는 매개체를 통해 다산의 삶을 이해하게 된다.

## 맺음말

다산 정약용은 찬사가 부족할 정도로 많은 업적을 남긴 인물로, 지역과 시대를 뛰어넘어 이 시대가 진정으로 원하고 필요로 하는 인물상이다. 다양한 분야를 두루 섭렵한 그의 학문 정신과 복사빠가 세 번이나 구멍이 날 동안 써낸 500권이 넘는 저술, 배다리와 거중기로 대표되는 과학적 업적 등 그는 유네스코의 세계기념인물로 선정되기에 손색이 없는 인물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학자로서의 다산 모습 이전에 사람으로서의 다산에 주목하여 수용자가 쉽고 친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다산의 면모를 재조명하였다. 방문객이 책이나 기타 매체를 통해 수동적으로 습득한 그의 사상이 아닌, 내가 딛고 서 있는 공간 안에 남겨진 다산의 자취를 찾아 나가면서 다산에 대한 호기심과 이해를 키울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에 복원되었으나 여전히 다산의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는 여유당과 그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다산 유적지를 대상으로 감성 콘텐츠 개발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콘텐츠 개발은 꽃과 나무를 심어 정원을 가꾸고 배 한척 강에 띄워 배를 집으로 삼아 물결 위를 떠다니고 싶다 말하던 다산, 몇 백리가 넘는 먼 유배지에서도 편지로 아들을 교육하고 시집가는 딸에게 그림을 그려 보냈던 엄격하고도 자상한 아버지 다산, 아내가 보내온 치마폭에 붓글씨를 써 내려가던 지아비 다산의 모습에 주목하였다.

콘텐츠 전략은 공간 스토리텔링을 활용하여 마재마을 일대를 다산의 고향이자 마음의 터전으로 보았고, 수용자 분석을 통해 ‘휴(休)’와 ‘가(家)’를 키워드로 선정하여 수용자의 감성 체험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다산 유적지 내에서도 다산을 말해주는 공간인 여유당을 콘텐츠 체험의 장소로 선정하여 방문객이 다산의 공간 안에서 직접 체험하며 다산과 연결 짓는 인지적 경험이 가능하도록 했다.

감성 콘텐츠를 통해 접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다산의 모습은 수용자가 쉽고 친근하

게 다산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이는 학자로서의 다산을 배제하는 것이 아닌 그를 온전히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1회에 걸쳐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는 점과 남양주시민이 연구 참여자로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한계점을 가진다. 보다 폭넓은 공감대 형성을 위한 감성 콘텐츠 개발을 위해 능내리 지역주민 의식에 대한 연구가 후속 연구로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강진군과 남양주시는 다산 정약용이 머물며 지냈던 곳이다. 강진에서의 유배생활은 그에게는 선택하지 않은 슬픔이자 괴로움인 동시에 그의 학문을 더욱 견고하고 깊게 만드는 시간이었음에 틀림없다. 강진의 유배생활이 있었기에 지금의 다산이 있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았으나 강진군과 남양주시의 공동 문화 아카데미의 운영도 필요한 일일 것이다. 지역을 뛰어넘어 하나의 역사 인물 콘텐츠를 함께 다루며 소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다산 콘텐츠의 힘은 다산 정약용이라는 역사적 인물 콘텐츠 자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지역민들이 사랑하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있다. 지역민이 애착을 가지는 콘텐츠는 지역의 로컬리티를 더욱 견고하게 만든다. 이에 본 콘텐츠 개발에서는 콘텐츠 운영의 주체에서 지역민을 배제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지역민에 의한 프로그램 운영을 제안하였다. 향후 이와 같은 콘텐츠가 실용화된다면 지역민이 만들어내고, 방문객이 공감하는 콘텐츠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자료

### ■ 단행본

- 김영순 외, 2013, 『제주도 문화자원의 종합적 스토리텔링화 방안』, 제주발전연구원.  
나미수, 2012, 『미디어 연구를 위한 질적 방법론』,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Edward Relph, 『Place and Placelessness』, 김덕현·김현주·심승희 역, 2005, 『장소와 장소상실』, 서울: 논형.  
박석무, 2014, 『다산 정약용 평전』, 서울: (주)민음사.  
박혜숙 편역, 2009, 『정약용 산문 선집 다산의 마음』, 경기: 돌베개.  
정약용 저, 박석무 편, 2014, 『다산산문선』, 경기: (주)창비.

### ■ 학위논문, 학술논문

- 손흥철, 2009, 「다산학의 재조명을 위한 시론」, 『다산학』 15호, 5-39쪽.  
오은지·이훈·정철, 2011, 「가족단위 축제참가자들의 교육적체험 분석」, 『관광레저연구』 23호, 399-418쪽.  
윤유석, 2010, 「스토리텔링을 통한 지역 역사인물의 대중화 : 안산 최용신 문화콘텐츠를 중심으로」, 『인문콘텐츠』 19호, 301-325쪽.  
조영주, 2012, 「지역박물관의 문화원형 전시 비교연구-다산 정약용 전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 웹사이트

두산백과(<http://terms.naver.com/>)

부록

I. 현지관찰일지

분류	내용
일시	2014년 8월 16일 토요일 AM 9:00 ~ PM 6:00
대상	다산 유적지, 다산 유적지 방문객
장소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다산 유적지

관찰  
동선\*



1. 다산 유적지 입구 ~ 천일각 ~ 다산 문화의 거리 ~ 다산문화관

다산 유적지 입구를 들어서기 전 제일 먼저 위치한 것은 천일각이다. 사람들은 안내 게시판의 천일각 내용을 읽어보기도 하였으나 오래 관심을 두지 않았다. 입구에는 체험학습과 관련된 현수막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고 그 양옆으로 간이 식당이 있어 다수의 방문객이 모여 앉아 있었다. 연구자가 참여관찰을 끝내고 다시 입구로 돌아왔을 때도 내내 많은 방문객이 머물러 있었다. 방문객은 다산 문화의 거리에 조성된 기념비, 거중기를 제외하고 다산의 글귀를 새긴 기둥이나 다른 모형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다산 문화의 거리 안내도가 설

\* 지도 출처: 구글 어스(Google Earth).

치되어 있지만 오래 되어 읽기가 불편하고, 모형에 새겨진 글귀 역시 가독성이 떨어진다.

다산문화관에서 방문객은 내부 전시실, 스마트폰 어플 설명 패널, 탁본 체험대, 남양주 다산길 맵 패널에서 골고루 관람하고 있었다. 다산 문화관의 내부 전시실은 스토리텔링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시 패널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좁은 공간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관람하기 위해 방문하였다. 전시실 내 다산 전시영상은 애니메이션으로 되어 있는 간단한 영상으로 어린 아이들도 관심 있게 보고 있었다. 다산 문화관의 킬러콘텐츠는 탁본 체험이었다. 탁본 체험대에 방문객의 줄은 끊임없이 이어졌다. 어린이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았고, 어른들도 재미있어했다. 체험 후에는 부모는 아이들에게 탁본 내용을 읽어주고, 무슨 내용인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 2. 다산기념관 ~ 다산동상

다산기념관의 관람객들은 다산문화관과 달리 관심 없이 어슬렁거리거나 관람을 위한 평균 체류시간이 5분 이내였다. 참여관찰 30분간 다녀간 관람객은 40여명이 넘지만 그 중 적극적인 관람 형태를 보인 관람객은 소수에 불과했다. 유적지 내 관람 동선 상 다산 문화관을 관람한 후 다산 기념관으로 가게 되어 있으나 기념관으로 들어가지 않는 방문객도 많았다. 다산 기념관 내 조명은 매우 어둡고, 영상과 디오라마 음성이 뒤섞여 제대로 들리지 않아 관람객의 전시 집중을 방해했다.

전체 기념관의 전시 패널은 다산의 연보를 시작으로 다산의 생애를 사실을 바탕으로 전시 되었으며 디오라마 전시가 주를 이루었다. 관람객은 다산 기념관 내에서 수원 화성 축조 디오라마와 인자한 아버지 다산 디오라마에 가장 많이 머물렀다. 거중기 모형을 보고 아이들에게 설명하는 부모들이 많았으며, 아이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자 혼자 관람하고 사진을 찍기도 했다. 기념관 내 전시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람하는 관람객이 적었다. 다산 동상은 그 옆으로 다산의 정치사상을 비롯한 경제, 사회, 과학, 문학, 교육사상에 대한 설명이 있었지만 참여관찰 동안 그것을 인지하는 관람객이 없었다. 동상 앞으로 수원화성 축소모형과 투호놀이체험 앞에는 많은 관람객이 쉬었다. 수원화성 축소모형은 어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아 직접 만져 보기도 하고, 투호 놀이는 어른아이할 것 없이 재미있게 체험했다.

## 3. 배다리 ~ 여유당 ~ 다산정약용묘 ~ 문도사

여유당 앞 조성된 배다리 위를 걷는 관람객, 여유당으로 바로 들어가는 관람객 등 동선은 자유로웠다. 배다리 앞 안내 게시판을 읽고 배다리를 다시 보고 사진을 찍는 관람객도 있었다. 배다리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위치한 서화관은 체험이 이루어지지 않아서인지 굳게 닫혀

있고, 관람객도 그쪽으로는 이동하지 않았다.

다산 유적지 내에서 방문객들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은 여유당이였다. 여유당을 꼼꼼하게 관람하는 관람객도 있는가하면 실제 다산이 살았고 다산의 책이 많이 집필된 곳이라는 인식 없이 전통가옥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안내 게시판도 하나뿐이어서 생가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 실제 생가 안에 여러 가지 물품들이 배치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다산과 관련 지을만한 내용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곳에 방문객들이 오래 머무르는 이유는 여유당과 그 근처로 조성된 쉼터들이다.

여유당에서 다산 정약용 묘로 올라가는 길목에는 쉼터가 조성되어 있다. 생가만 보고 돌아가려다가 정약용 묘로 이동하는 관람객이 다수 있었다. 주변에는 벤치 등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많아 방문객들이 모여 휴식을 취하였다. 삼삼오오 모여 앉아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어 방문객들이 좋아했다. 여유당 내에서도 앉아 쉬는 방문객이 많았다. 관람객들은 여유당 관람 후 쉼터에서 쉬거나 정약용 묘로 이동했다. 정약용 묘를 다녀온 방문객은 단혀 있는 사당쪽으로는 가지 않았다. 때문에 관찰이 이루어진 하루 동안 다산 유적지에 많은 관람객이 왔는데도 사당 앞 공간은 텅 비어있었다.

## II. 현장사진\*

### 1. 다산 유적지 입구 ~ 천일각 ~ 다산 문화의 거리 ~ 다산문화관



<그림 1>, <그림 2> 가독성이 떨어지는 기념비와 안내도

\* 제시된 사진은 연구자가 8월 16일 현장 조사를 통해 직접 찍은 사진임.





<그림 3>, <그림 4> 다산문화관 탁본체험



<그림 5> 다산문화관 내 전시영상 화면



<그림 7> 전시 영상을 관람하는 어린이들

## 2. 다산기념관 ~ 다산동상

다산 콘텐츠의 공간 스토리텔링을 통한 감성 콘텐츠 개발- 남양주시 연계 다산 콘텐츠 활용-



<그림 5>, <그림 6> 다산기념관의 어두운 실내 분위기



<그림 7> 다산 정약용 동상



<그림 8> 동상 옆 다산의 정치사상 설명



<그림 9> 수원화성 축소모형



<그림 10> 투호체험을 하는 사람들

3. 배다리 ~ 여유당 ~ 다산정약용묘 ~ 문도사



<그림 11> 여유당 전경



<그림 12> 여유당 안내게시판



<그림 13>, <그림 14> 여유당 내부 모습



<그림 15> 묘에서 내다려다 본 여유당



<그림 16> 닫혀있는 사당



<그림 17> 정약용 묘로 오르는 길



<그림 18> 쉼터에서 쉬는 사람들

### Ⅲ. 수용자 분석을 위한 인터뷰

분류	내용
일시	2014년 8월 16일 토요일 AM 9:00 ~ PM 6:00
장소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다산 유적지
대상	다산 유적지 방문객 10명

#### 1. 여유당 앞 쉼터에서 쉬고 있는 등산복 차림의 40대 부부 남A, 여A

연구자(이하 연): 다산 유적지 어떠셨어요?

남A: 되게 잘 되어 있네요. 원래 살았던 것보다 생각을 크게 지었나? 그런 건 잘 모르겠고,

그때 당시가 상상이... 이런 집에서 살았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연: 그럼 이렇게 조성된 거 보시고 그때 당시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상상까지 해 보신 거예요?

남A: 네.

연: 들어오시다가 기념관, 문화관 보셨나요?

남A: 그렇죠.

연: 보실 때 어떠셨는지.

남A: 기념관이요? 아직 기념관은 안 들어가 봤고.

여A: 뭐, 그냥 잘 가꿔놔서. 가족들이 휴식 삼아서 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잠깐 그냥 보고 가는 개념이 아니고. 어떤 분들은 자리 펴놓고, 어떤 분들은 여기 도시락 싸와서 먹고 놀기도 하고. 잠깐 가족끼리 나들이 공간으로 괜찮은 것 같네요.

연: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어떠세요?

남A, 여A: 좋죠.

연: 혹시 자녀분이 있으시다면?

남A: 우리 애들은 대학생들인데.

여A: 다 컸으니까.

남A: 어리다면 한 번 와서 여기만 보는 것뿐만이 아니고, 주위에 산책길도 있고 한테 나중에 시원할 때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연: 다른 지역에 비교해서 다른 매력을 느끼신 게 있나요?

남A: 그전에 황순원 소나기 마을을 들렀다가 왔는데 그 때도 느낀 게... 거기도 남양주인가? 하여튼 요즘에 지자체가 만들어서 그런지 잘 가꿔놨어요. 주민들한테도 좋고. 관광지로 또 오기에 좋은 것 같아요.

연: 다시 방문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남A: 그럼요. 아까 말한 대로 여기뿐만이 아니고 주위에 무슨 길? 태양길인가?

연: 혹시 다산길?

남A: 다산길? 거기도 가보고 싶어요. 선선해지고 한 번 또 왔을 때 걸어보고 싶네요.

연: 지금 생각만 둘러보셨나요?

남A: 묘랑 생가 둘러보고.

여A: 문화관 봤어요.

남A: 문화관.

연: 문화관은 어떠셨어요?

남A: 문화관은 뭐 색다른 건 아니고, 기존에 다른 문화관 해놓은 것 같이 꾸며놨는데. 일단 정약용이 집필을 여럿 했지만 대표적인 목민심서 이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굉장히 많은 책을 남기셨구나 하는 걸 느꼈죠.

여A: 그리고 여기 정약용 묘비인가, 그런 말이 써있잖아요. 자기는 용기가 없어서 하지 않아야 될 일도 정에 이끌려서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그런 말을 써놨잖아요. 그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연: 아, 저기서 보신 말들이요? 여기 앞에 배다리는 어떠셨어요?

여A: 배다리도 그 당시에 저런 걸 생각해서 만들었다는 게 좀...

남A: 그렇죠.

여A: 놀랍죠.

남A: 역시 과학자였고, 문화가뿐만이 아니고. 한국의 레오나르도다빈치란 말을 들었거든요. 과학적인 면도 있고. 아, 이게 그 때 당시의 아이디어구나. 아직 거중기는 못 봤어요. 거중기는 어디에 있나?

연: 거중기는 앞에 오시는 길에도 있었고, 기념관 들어가시면 모형으로 만들어놨더라고요.

남A: 거중기는 안 봤는데, 그런 것도 생각해보면 과학자의 면모가 보이죠.

연: 이런 비슷한 류의 관광지에는 많이 다녀보셨어요?

남A: 개인보다는 단체로, 황순원 소나기마을.

여A: 김유정 문학관 뭐 이런 곳... 그런데 여기는 거기보다는 규모가 크고 가족들의 휴식 공간으로 잘 가꿔놓은 것 같아요. 나들이 공간으로. 우리 어렸을 때, 애들 초등학교 때 애들 체

힘 많이 다니잖아요. 그런 공간으로 잘 해놓은 것 같아요.

남A: 너무 인위적이 아니고.

여A: 우리야 애들이 다 컸으니까. 우리도 애들 저만할 때 초등학생 때 체험학습 많이 다녔어요. 그런 공간, 하루 나들이 공간으로 좋네요.

## 2. 여유당 생가 옆에서 카메라를 보고 있는 40대 부부 남B, 여B

연: 제가 다산 관련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몇 가지 여쭙도 될까요?

남B: 저는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데, 그냥 구경 온 거라서.

연: 여기서 어떤 거 보셨는지, 어떤 거 느끼셨는지 대답해주시면 되요.

여B: 그래요.

연: 지나오시면서 기념관, 문화관 다 보셨어요?

남B: 아뇨. 다는 못 봤어요. 여기 처음 들어온 거예요. 그런 건 하나도 안 봤어요. 볼 수 있는 대로 봐야죠, 뭐.

여B: 다른 데는 못 봤어요.

연: 지나오시다가 다산 문화의 거리를 보셨나요?

여B: 아뇨. 뭐, 보긴 봤는데. 깔끔하고 정돈되서 관광지로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연: 여기 와서 다산에 대해 느낀 것은?

여B: 그런 건 없고요. 물 좋고, 공기 좋은데서 놀러 오기 좋구나 그런 생각...

연: 여긴 어떻게 방문하시게 되셨어요?

여B: 그냥 가다가 들렀어요.

남B: 그런 건 라디오에서도 가끔 나오던데, 서울 근교 가볼만한 곳 이렇게 해서. 라디오에서 한 번 들었는데, 남양주 다산 여기 가볼만한 곳이라고.

여B: 와볼만한 곳인 것 같아요. 아이들 교육에도 너무 좋고. 서울하고 가까우면서 물도 좋고, 공기도 좋고. 이렇게 정비도 해놓고.



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자연 공간이 많다거나….

여B: 자연 공간도 좋고, 우리나라 저런 담벼락 같은 걸 해봤잖아요. 애들이 접하기에도 좋고, 그러면서도 지금은 없는 옛날의 미학이 느껴지잖아요. 운치 있고.

연: 여유당에서도 그런 걸 느끼실 수 있었나요?

여B: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남B: 네, 뭐 그런 건 잘….

연: 그럼 오늘 관광하시러 오셨나요? 다시 재방문할 생각이 있으신지.

남B: 있죠, 나중에 가을에 신선할 때.

연: 혹시 교육용으로는 어떠셨나요?

여B: 애들이 다 커서 교육용으로는 뭐….

### 3. 다산 유적지 입구 옆에서 쉬고 있는 40대 부부 남C, 여C

연: 오늘 여기 오셔서 어떤 거 보셨어요?

남C: 저는 여기 자주 와서.

연: 아, 이 지역분이세요?

남C: 아니요, 서울 살아요.

연: 가까우시니까 자주 오시나 봐요.

남C: 그렇죠.

연: 기념관이랑 문화관 생가 다 보셨어요?

남C: 아뇨, 생가만 봤어요.

연: 보니까 어떠셨어요?

남C: 글썸 저는 그 전에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연: 간단하게 느끼신 것 이야기해주시면 되요.

여C: 생가가 좋지 않았어요. 다른 생가보다.

남C: 유배된 사람치고 대우를 잘 해줬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정조가 굉장히 예뻐한 사람인데, 내각에 들어오기만 하면 분란을 일으키고, 싸우고. 그러니까 유배 보냈잖아요. 정약용이 책을 한 500권 썼다고 하던데, 다산 제자들을 지도해주시면서 썼다고 하더라고요. 아까도 한 이야기인데 이런 분이 몇 명만 있었으면... 임진왜란이나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었겠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죠.

연: 그런 생각들을 여기 와서 둘러보시면서 느낄 수 있으셨나요?

남C: 기념관은 안 가보고 여기 생가만 와봤는데, 특별한 생각은 없고 기존에 들었던 거나 수원성 축조도 하고... 이런 저런 것을 생각해볼 때 그런 생각이 들었죠.

여C: 이런 게 있음으로 인해서 좀 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겠죠. 정약용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을 하게 되는.

남C: 정약용이 정상적으로 승승장구했다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연: 아까 다른 곳의 생가랑 다르게 안 좋았다고 하셨는데, 어떤 점이 그런가요?

남C: 저는 생가의 구조가 좀 특이하다고 생각했어요. 생가 안에 왜 묘지가 있는지, 보통 생가하고 묘소는 우리나라의 구조가 일본하고는 다르게... 일본은 자기 집 안에다가도 사당을 만들어 놓기는 한데, 보통은 생가하고 멀리 떨어진 선산에 묘를 두잖아요. 좀 특이해요.

연: 생가 앞에 모형으로 만들어진 배다리는 보셨어요?

남C: 배다리요? 아, 요즘도 뭐 그런 걸 하잖아요. 한강도하작전. 요즘은 기계화가 잘 되어 있어서, 쇠로 된 다리를 군인들이 만들어서 탱크도 지나가고. 뭐, 이런 걸 그 때도 생각했다는 게 대단하죠.

연: 이 다산 유적지가 관광지로는 어떠세요? 오늘 황금연휴에 놀러오셨잖아요.

남C: 글썄요. 국내 관광지로는 괜찮기는 한데,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깊이 있게 이해하는 사람들만 좋고 이렇게 봐서는 외국인들이 별로 크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연: 어떤 분이 말씀하시길 안내판에 영어가 없다는 말도 하시던데.

남C: 영어가 있어도. 있어도 실학사상이라는 게 외국인들은 이해하기 어렵죠. 깊이 있게.

연: 아, 좀 어려운 내용이다.

남C: 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국사 시간에 배워 와서 실학사상이라는 거에 깊이 있게 이해가 되어 있잖아요, 유교 비교해서. 조금은 알지만. 외국인은 모르잖아요.

연: 여기 오늘 둘러보시면서 어떠셨어요? 다른 분들은 휴식 공간, 나들이 공간이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남C: 전 여기 공원에 자주 와서. 거기 휴식 공간이지만.

여C: 배우는 공간.

남C: 여기는 애들한테 학습 공간으로 좋은 것 같아요.

#### 4. 여유당 앞 쉼터에서 쉬고 있는 60대 할머니 여D

연: 오늘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여D: 이제 집에서 10시에 출발했나?

연: 오늘 보시고 어떠셨어요?

여D: 뭐, 오늘 제대로 잘 왔다고 생각했지. 제대로 잘 왔네. 우리 강남에 사니까 팔당호 쪽으로 와보자. 팔당호로 한 바퀴 돌고 쉬었다가 오는 길에 여기 딱 박물관이야. 박물관에 한 번 가보자. 무슨 박물관이냐. 다산 정약용이다. 그래 그럼 들어가 보자 해서 들어왔지.

연: 평소에도 박물관 자주 가시나 봐요?

여D: 우리 며느리가 박물관 학예사. 광주시의 공무원. 개는 서울 오면 박물관에 잘 가.

연: 그래서 평소에도 그런 것 때문에 박물관 많이 접하셨겠네요?

여D: 그렇지. 우리 며느리가 박물관 학예사니까.

연: 여기서 어떠셨는지, 어떤 게 제일 좋으셨는지?

여D: 정약용이라는 참, 위인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거기 들어가 보자 해서 들어왔고. 다산 유적지 설명서도 가져와서 읽어보고. 우리 애들한테 이야기해 주려고. 나중에 아들한테 나중에 차 가지고 한 번 가자 그래서 오려고. 점심 먹을 데도 많고. 이런 것들이 애들한테는 공부

가 되잖아. 우리 아저씨 원래 선생님이었거든. 삼성동에 선릉이라고 있는데 시골 조카들이 오면 역사 공부하러 가자 그래서 많이 갔다고. 초등학교 애들 다 데리고 역사 공부하러 갔거든.

연: 여기가 박물관 형식이랑 생가가 같이 되어 있어서...

여D: 그러니까 더 좋죠. 그리고 저기 묘도 있잖아요. 정약용 선생 묘. 서울에도 능이 많아. 서울에도 정종 중종 묘가 많아.

연: 평소에도 역사나 이런 것도 관심 많으시네요.

여D: 많기는, 살다보니 알게 된 거지. 우리 아저씨 돌아가시니 배울 데가 없어. 역사 선생님이라 많이 배웠는데.

연: 여기는 다른데 비교해서 모자라거나 안 좋은 부분은?

여D: 안 좋은 부분은 없어. 너무 잘되어 있고, 정돈되고. 아늑하고. 사람도 안 많고. 여기는 지역이라 아직 큰 관광지는 아니잖아. 여기 잘 되어 있고 참 좋네. 공기 좋고. 우리 언니한테 이야 제대로 잘 왔다 그랬다고. 내가 선택 잘했다고. 조카도 아주 좋아해.

연: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신가 봐요.

여D: 그럼. 100프로 만족. 밥 먹으러 왔는데 이만큼 구경했으니 좋잖아. 저기 저 나무가 사당 안에도 그렇게 있으니 좋잖아.

연: 경치가 되게 좋죠.

여D: 묘가 너무 좋다. 여기 아까 읽어보니 여유당인가? 여유당 뒤편에 묘가 있다길래 가보려고 그랬어. 여기가 여유당이거든.

연: 팸플릿 읽어보신 거예요?

여D: 아니 저기 기념관에 들어가서 다 읽어보잖아. (다산문화관 안 탁본체험 종이를 보여주면서) 이것도 여유당 글씨가 좋아서 했어. 내가 붓글씨 좀 썼거든. 이것도 애기들 보라고 했어. 이것도 연필이 없어서 못해. 이건 매화 그림이야. 나는 또 이런 그림도 좋아하고.

연: 저 때문에 일행 분들 가신 거 아니세요?

여D: 아니야, 저기 여유당 보러갔네. 살던 집인가 봐. 여유당 뒤편에 안장되어있네. 나중에 며느리하고 여기 와야지. 서울에서 가깝잖아요. 가깝고 이렇게 한적하고 깨끗한 데가 없잖아. 마구 유흥가고 그런데, 여기는 유흥가도 없고, 애들이랑 오기 너무 좋구만. 식당도 있어서 밥도 먹고.

연: 그럼 여기 와서 정약용에 대해서 알게 되신 건 있으세요?

여D: 정약용 선생, 여기 돌아보니까 뭐 그냥 위인이구나 그런 거지 뭐. 다른 건 아는 게 없어요.

연: 그럼 한 번 돌아볼 수 있는 관광지여서 좋은 거예요?

여D: 그렇지 뭐. 위인이니까 그것만 아는 거지, 뭐.

연: 기념관 설명이 잘 되어 있던 가요?

여D: 잘 되어 있더라고. 모르는 사람도 대충 읽어보면 알게 잘 되어 있더라고. 여유당 뒤편에 안장되어 있다 길래. 그래서 저기 올라가보자 그래서 여기 온 거지.

연: 읽어보시고 직접 가보자 해서 오신거구나. 가까워서.

여D: 아 너무 좋다. 여기가 정약용 고향인 가봐, 태어난 곳인 가봐.

## 5. 다산 유적지 입구에서 30대 여자 관광객 여E, 여F

연: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여E: 이 근처 사는데 오늘 날씨도 좋고 바람 쐬러 나왔어요. 여기 근처 살아서 자주 왔어요.

연: 여기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E: 여유당이 옛날에는 개방이 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은데, 오늘 보니 개방되어 좋은 것 같아요. 문이 닫혀있으면 사람들이 그냥 보고 지나가잖아요.

연: 사람들이 휴식 공간으로 많이 생각하는 듯한데.

여F: 그래도 여기는 단순히 공원이 아니잖아요. 유적지이고 교육이 되는 공간이면 공원 정도

로는 안 되죠. 공원이랑 교육공간은 엄연히 다르잖아요.

여E: 그리고 생가 앞에 조금만 설명이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있지만 지금 정도로는 사람들이 그냥 보고 지나가니까, 잠시 머물러서 볼 수 있도록….

여F: 애들 교육에도, 아무리 엄마들이 설명한다고 해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설명들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E: 그리고 팻말에 영어가 없어요. 영어랑 중국어랑. 그게 없으니 외국인들이 무슨 내용인지 모를 것 같아요.

연: 배다리는 어떠셨어요?

여E: 사실 생가 앞에 배다리 모형을 왜 가져다 둔 건지, 뽕뽕맞아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가져다 둔 것처럼 보여요.

여F: 저기 수원 축조 모형도 처음에는 쓰레기통인줄 알았어요. 기념관 들어갔다가 나오고 보니까 모형이더라고요.

## 6. 다산 유적지 버스 정류장에서 30대 여자관광객 여G

연: 오늘 어떠셨어요. 일부러 찾아가셨잖아요.

여G : 저는 처음에 봤을 때, 너무 깨끗하게 보존되어 있어서 복원이 강하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연: 사람들이 의외로 공원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던데….

여G : 공원으로 생각하는 게 나쁜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장점으로, 문턱이 낮다고 해야 하나. 여긴 문화재야 이런 느낌이 아니라 공원, 놀이 공간, 산책로 이려면 조금 더 문턱이 낮으니까 와보기에 쉬운 것 같아요.

연: 맞아요. 깨끗하긴 하더라고요.

여G: 그 안에 병풍도 해놓고 아가씨들 화장대도 해놓고, 방석도 해두고, 서랍장이나 소, 아궁이 같은 것도 해놓고, 그런 디테일을 많이 살렸더라고요. 세심함? 지어놓고 생가야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걸 소소하게 배치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사당은 잠겨 있더라고요. 되게 신경 써서 보존하는구나 생각했는데 너무 깔끔하고 잘 되어 있어서 후대에서 손을 많이 만진 것 같았어요.

여G: 그리고 정약용이 거중기를 사용해서 수원화성을 축조했는데, 왜 수원화성은 유명하고 정약용은 덜 알려진 느낌이 있잖아요. 수원시는 랜드마크는 수원화성을 가지고 있어서 잘 되어 있는데, 남양주는 그걸 만든 사람이 있는데 활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여G: 남양주는 가려진 문화재가 많은 것 같아요. 정약용이나 고종도 볼 수 있는 측면이 많은데. 그리고 거리가 가까이 있는데도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더 멀리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게, 가까운 거리라는 이점이 있는데도 활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여G: 다산이 책 진짜 많이 썼잖아요. 책으로 유명한데, 이 사람을 어떻게 책 밖으로 꺼낼 수 있는지.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연: 오늘 보니 공원처럼 생각하고 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그렇게라도 사람들을 유도하니 좋은 거 같아요.

여G: 어찌됐든 사람들이 오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그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들한테 100원이라도 물건을 팔아서 이익을 남겨야 남양주시 재정이 풍부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가장 핫한 곳이 아이스크림 가게더라고요. 거기 외에는 장사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여G: 블로그에서 봤는데 여기가 원래는 유료였대요. 지금 무료로 바뀌었대요. 정약용이란 사람이 본인이 가진 업적이나 능력에 비해 유명하지 않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번에 명량을 통해서 이순신이 확 떠올랐잖아요. 21세기 현대에서 사람들을 자극하려면 밉송밉송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정약용은 왜 그렇게 되지 못하는지. 이순신은 장군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약용은 학자니까 액티브한 느낌은 없겠지만, 사람을 뭔가 탁 건드릴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